

건 명 : 2016년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

기 간 : 2016. 10. 31. ~ 11. 5. (4박 6일)

방문국 : 중국 운남성 (곤명, 여강)

- 2016년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2016. 11.



성 동 구 의 회

목 차

- I. 여행개요
- II. 여행자 명단
- III. 여행 일정
- IV. 방문지 및 방문국가 현황
- V. 주요방문지 및 활동 내용
- VI. 결론 및 총평

공무국외여행보고서

1 여행개요

□ 여행목적

선진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비교 시찰하여 도시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축적하여 지역특성화, 지역 문화 발전 정책 및 자연유산 보존방안 등 우리 구의 현안 과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의 기회로 삼고자 함.

□ 여행지역 : 중국 운남성 (곤명, 여강)

□ 여행기간 : 2016. 10. 31. ~ 11. 5. (4박 6일)

□ 중점 활동사항

- 중국의 도시문화를 비롯한 전통산업, 자연유산 등의 탐방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의 문화재 관리와 운영 실태 탐구
- 우수한 제도 및 국내 활용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고
- 환경보호, 환경 인센티브 제도 등 21세기 중국의 환경제도 파악
-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터전, 삶의 방식 이해

2 여행자 명단

구 분	연 번	직 책	성 명	성별
중 국 비교시찰단	1	의회운영위원장	문 복 란	여
	2	행정재무위원장	은 복 실	여
	3	복지건설위원장	남 연 희	여
	4	의 원	박 경 준	남
	5	의 원	이 상 철	남
	6	의 원	신 동 욱	남
	7	의 원	엄 경 석	남
	8	의 원	김 해 선	여
	9	사무국장	신 형 수	남
	10	직 원	김 환 균	남
	11	직 원	정 윤 성	남
	12	직 원	송 혁 준	남

3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 문 지	수 행 내 용	비 고
10.31(월)	구의회 (15:00)	인천공항 (16:30)	○인천국제공항 도착		KE 0885
	인천공항 (18:30)	곤 명 (22:05)	○숙 소	○곤명 이동 및 도착	
11.1(화)	곤 명	석 림 곤 명	○대소석림 ○구항폭포	○자연유산 보존·관리방법 과 관광마케팅 기법 견학	
11.2(수)	곤 명	여 강	○운남육군강무학교 ○호도협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방문 ○역사적 명소 체험	
11.3(목)	여 강	곤 명	○여강시 고성구 복지원 ○여강고성	○복지시설 운영방법 등 견학 ○중국 소수민족 전통 문화체험	
11.4(금)	곤 명	-	○운남민속촌 ○이 동	○중국 소수민족 융화 정책 확인	
11.5(토)	곤 명	인천공항 (05:00)	○복 귀		

4

방문국가 및 방문지 현황



- 국 가 명 : 중화인민공화국
- 수 도 : 북경 (2,069.3만명)
- 면 적 : 약 960만km²(세계 4위)
- 인 구 : 약 13억 5,569만명 (농촌: 약 6.91억명, 도시: 6.57억명)
- 행정구역 :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GDP : 11조 3,916억\$ 세계2위
- 민 족 : 한족과 55개 소수민족(1억 1,379만명, 총인구의 8.7%)



- 언 어 : 중국어 사용 (방언, 소수민족언어 존재)
- 정 체 : 사회주의국가
- 형 태 : 공산당 일당독재 (형식상 8개 정당 존재)
- 지 도 자 :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시진핑
- 화폐단위 : 위안화(CNY, 1위안=약 170원, 2016년 11월 16일 기준)



[방문지 : 운남성]

- 면 적 : 39만 4,000km²
- 인 구 : 4,631만 명 (2012년)
- 행정구역 : 수도 곤명, 6개 시, 10개 현급 시, 109개 현
- 자연환경 · 기후
 곤명 : 1월 평균 9.2도, 7월 평균 19.9도, 연평균 강수량 866mm
- 52개 민족이 있으며, 소수민족의 비율은 약 33%이다. 소수민족은 노래와 춤에 능하며, 4월 중순에 열리는 타이족의 물뿌리기 축제와 6월 하순에 열리는 이족의 햇불 축제, 타이족의 독특한 대나무 건축 등 다채로운 문화를 이룬다.

5 주요 방문지 및 활동내용

□ 울창한 돌의 숲, 석림



석림(石林)이란, 말 그대로 돌로 이루어진 숲이라 하여 뾰족하게 솟은 돌들이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고 있어 멋진 장관을 이룬다. 가까이서 보면 선비가 갓을 쓴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인데, 그 형상이 누군가에 의해 조각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다. 이러한 돌들의 모임이 면적 350km²에 달한다니 이는 얼마나 넓은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실제로, 우리가 석림 공원에서 차로 20분가량을 벗어나도 석림이 드문드문 보이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대륙의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

원래는 바다였던 이 일대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해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석회암이 모습을 드러냈고, 오랜 세월 침식으로 인해 지금처럼 기괴하고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석림은 현재 곤명에서 제일의 관광지로 칭송받으며 곤명 여행 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 환상적인 석회 동굴, 구항풍경구



다음으로 석림에서 차로 50분가량 이동하면, 구항동굴에 다다른다.

구항동굴이란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동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제주의 석회동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구항동굴은 국가지정명승구로 면적이 총 200km²에 이르고, 66개의 종류

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관광객에게 공개되는 것은 일부이다.

하지만 그 면적이 워낙 커서, 공개된 동굴을 전부 돌고 나오는데도 대략 1~2시간이 소요된다. 동굴 내부엔 소규모 공연장과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상당히 깊고 계단도 굉장히 많다.

따라서 구항동굴 관광 시에는 계속해서 걸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있지 않으면 힘들다. 오른쪽 사진에서 처럼, 계단이 많고 가파르기 때문에 동굴 내부에는 실제로 가마꾼들이 여러 명 있었고 하부에서 상부까지 한국 돈 2만원을 받고, 태워주는 기이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다.



곤명 구항동굴만의 특색이 있다면 사진처럼 바위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사용하여 마치 해저 속에 들어온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동굴 내부에 큰 폭포수가 연결되어 아래까지 계속 흐르면서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계단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구경을 하고 나왔다면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다.

리프트에 오르면, 입구까지 되돌아가는 경로가 길게 펼쳐져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산을 넘고 언덕을 올라감에도 리프트에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다. 특히 발아래 안전망과 같은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단순 의자에 의지해서 이동하는 구조이기에 탑승객의 부주의에 의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국 쪽에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보호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편 국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에서 금속 폐광산을 활용한 광명 동굴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 중이라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자연 유산을 활용한 관광 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향동굴 내부



구향동굴 출입구



동굴 내부에서 전통놀이 체험



형형색색의 조명

□ 극한의 산길을 따라 걷는 호도협, 차마고도



다음 날, 곤명에서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여강으로 이동했다.

공항에 도착해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부로 이동하면 호도협에 도착한다.

차와 말을 교역하기 위해 중국 당나라에서 티베트, 네팔 인도까지 이어지

는 길을 사람들은 차마고도라고 불렀는데, 호도협은 그 차마고도의 일부로 강의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17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중 하나이다.

산 입구에서 트레킹 시작 지점까지는 ‘빵차’라 불리는 소형승합차가 데려다 준다. 고도가 높은 길이다보니 산을 지그재그로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 길도 마찬가지로 안전 장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로지 차를 운전하는 현지인에 안전을 내맡긴 채 30분간 이동해야 한다. 여간한 강심장이라 해도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호도협에 들어가면 산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길 옆은 바로 낭떠러지이다. 폭이 1m내외인 길은 자칫하여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옆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아찔했다.

더구나 길을 걷는 도중에 말을 풀어

놓은 구간이 있었다. 폭도 좁은데 옆은 낭떠러지니까 외나무다리에서 원수 만난 격이었다. 다행히 말들이 온순하여 사람에게 경계심이 없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말이 흥분하거나 날뛰었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트레킹 코스는 위험한 곳이 많았는데 다들 안전에 유의하여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곳이 국내에 있었으면 옆으로 난간을 만들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마련했을 텐데, 중국 고산 마을의 여건상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짧은 코스도 아니고 고산지대 중에서도 높은 구간에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 이해가 됐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만큼 아슬아슬한 곳이 많았으나 처음 길이 생겨났을 때 상태 그대로 누군가의 손길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만으로 자연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 여강 고성



여강은 옛날 명·청대에 건축되었던 가옥들이 많이 있다. 가옥들이 넓게 분포하며 촌을 이루고 있으니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옛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환상을 느끼게 된다.

입구에서 반대편까지 도보로 걸으면 최대 1시간가량이 걸리며 고성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고 양 옆은 상업 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가옥은 내·외형 그대로 사용하면서 상업적 형태로 변했고 그 안에서 음식 판매, 기념품 판매, 음악 공연 등 여러 가지가 행해지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고성이 아늑하고 운치가 있는 매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마을의 이익을 늘리려 하다 보니 술집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밤 문화가 곳곳으로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밤에는 길거리 이 곳 저 곳에서 중국 음악들이 흘러나오며 휘황찬란한 진풍경을 만들어 낸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여강 고성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찾아 오고 볼거리가 되지만 한편으론 돈 욕심에 의해 문화재가 상업시설로 둔갑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웠다.



고성을 군데군데 살펴보면, 마을 전체가 작은 수로를 따라서 이루어져 있고 물줄기를 따라 수십 개의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옆에서 돌로 만들어진 바닥과 전통 가옥들을 보고 있으면 운치가 있어서 옛 이야기 속의 마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반하여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보존에 힘써서 문화유산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였다.

여행지로서 고성의 특징 중 하나는 관광객들이 고성 내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옛 가옥들의 형태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되



므로 조금 더 가까이서 옛 가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외부와 달리 숙소 내부에는 관광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침대나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다.

□ 온화한 날씨인데 산 위엔 눈, 만년설의 옥룡설산



여강 시내를 이동하는 내내 멀리 보이는 옥룡설산이다. 가장 위로 보이는 봉우리는 해발 약 5500m로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은빛 용이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옥룡설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양쯔강의 상류인 진사장강[金沙江]을 사이에 두고 옥룡설산과 합파설산이 솟아 있고, 두 산 사이로 호도협 계곡이 16km까지 이어진다. 여강의 큰 줄기는 옥룡설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정상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데 지반이 약하여 아직까지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관광화가 많이 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상 기후에 의해 만년설이 녹지 않도록 지정된 버스만 운행하고 운행 횟수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버스에 내려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산행으로 갈 수 있는 높이는 4600m의 고산지대라서 호흡곤란, 멀미, 속 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산행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빨리 올라가기 보다는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는 것이 고산병에 취약해지지 않는 방법이다.

중국 운남성(쿤명, 여강)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비슷한 점이 많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생활모습, 문화 등은 차이가 있어서 눈길이 많이 갔다.



공원에서의 단체 기체조



광장에서의 단체 기체조

무엇보다 중국인들은 건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평소에는 보이차를 비롯한 각종 차를 즐겨 마시고, 오전에는 공원이나 광장에 모여서 기공 무술 비슷하게 보이는 단체 기체조를 하면서 신체를 단련시켰다.

평일의 이른 아침시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나와서 자연스럽게 체조를 따라하는 것은 낯설면서 신기한 광경이었다. 우리 구에서도 저녁시간에 청계천 변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듯 하다.

중국의 의료 체계는 보험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아프면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므로 평소에 건강관리에 힘쓴다고 한다.

사람이 아프게 되는 건 한 순간인데,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생활이 무너진다면 참 불안한 삶일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참으로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중국 여강을 둘러보면 여강 내에는 여러 관광지가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모여 살던 전통 마을을 개방하고 관광지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하였고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삶을 유지해 나가게끔 하였다. 공원 내의 청소부, 전통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음식 파는 사람 등이 모두 공무원이다.

중국 내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명성이 높고 선호하는 직업이기에 소수민족에게 제공한 혜택은 바람직해 보였다.



소수민족의 전통 민속춤 공연



관광지 내의 소수민족

4박 5일 동안의 중국 여행을 통해 국내에서의 시각을 벗어나 외국에서의 관광지 운영이나 주민을 위한 정책·제도 등이 어떠한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성동구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기타 우리구를 발전시켜 나갈 여러 현안 등을 생각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크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깊은 곳까지 헤아릴 줄 아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성동구의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보고서를 마친다.